

# IMF, 올해 韓성장률 2.5%→2.3%하향...내년엔 0.8%p 낮춰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반년 새 0.7%p ↓

최근 발표된 정부·주요기관 전망 중 가장 낮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까지 낮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 경제에도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2.5%)보다 0.2%포인트(p) 낮춘 것으로 올해 1월(3.0%)과 비교하면 반년 사이 0.7%p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번 수정 전망치는 최근 3개월 사이 정부

와 주요 국제기구가 발표한 전망치 중 가장 낮다.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2.6%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2.7%,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를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와 아시아개발은행(ADB·2.6%)도 IMF 전망치보다 높았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 보다 높게 지속되고, 중국의 성장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 폭이 상당히 둔화된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하향 조정 폭은 선진국 평균(0.8%p)보다 작고, 주요 7개국(G7) 중 0.7% 상향 조정된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소폭 조정된 것으로 기재부는 평가했다. 다만, 이번 IMF 발표에는 한은이 발표한 2분기 GDP 속보치(전 분기 대비 0.7%)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2.9%에서 무려 0.8%p나 낮은 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2.9%를 하회하는 것은 물론 조정 폭(-0.7%p)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2%로 이전 전망에 비해 0.4%p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3.6%에서 2.9%로 예상해 3%를 밑돌 것으로 봤다. 선진국은 미국이 강력한 통화 긴축과 구매

력 하락으로 대폭 하향되고,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대체로 낮아졌다. 중국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폭 낮췄다. IMF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물가대응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효과와 전쟁 등 하방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 등에 따른 에너지·식품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 생계비 부담 증가, 임금상승 압력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IMF는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전면 중단 등으로 최악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2.6%, 내년 2.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나리오도 추가로 제시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서 국가별 물가 상승 원인과 상황에

따라 통화·재정·구조개혁의 적절한 조합이 라고 제언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나라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감소와 실업 증가, 저임금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긴축 통화 정책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파산·회생지원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화차입 의존도 완화와 함께 대외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환시장개입 등도 주문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 화석연료 의존성 축소를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속도 역시 늦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승호기자

## 추석 선물 ‘실속세트’ 인기...5만원대 세트는?



이전에는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앞세우던 유통업체가 올해는 5만원 미만 실속 상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고물가가 계속되며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 업체는 가성비 선물세트이지만 고급 품종으로 구성을 맞춰 선물용으로 손색 없는 선물세트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체들은 지난주(21일)부터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일제히 시작했다. 이마트는 ‘고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주안

점을 두고 5만원 미만 실속 선물세트(리미티드 딜)를 작년보다 3배 많은 11종으로 늘렸다. 지난해 추석에는 5만원 미만 선물세트는 단 4종에 불과했다. 리미티드 딜 선물세트는 대량 매입과 사전 비축으로 기존 선물세트 대비 가격을 최대 40% 낮춘 한정판 선물세트를 말한다. 올 추석 ‘리미티드 딜’ 세트는 샤인머스켓, 사과, 배, 버섯 등 신선식품부터 김, 견과, 오일 등 가공식품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SSG닷컴도 2만원대 사과와 배, 3만원대 샤인머스켓과 망고, 6만원대 한우 등 초저가 선물세트를 잇따라 내놨다. 롯데마트는 올 추서에 가성비 선물 세트를 늘려 한우갈비세트·미국산 LA갈비세트를 9만 9000원에 선보였다. 5만원 미만 선물세트는 지난해보다 10% 늘렸고, 3만원 미만 사과·배 세트도 구성했다. 1만원 미만 김 선물 세트(9900원)도 5종 준비했다. 사전 예약기간에 행사 카드도 구매하면 정상가보다 최대 40% 할인 받을 수 있고,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도 해준다. 홈플러스는 올해 선물세트 품목을 585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5만원 미만 가성비 선물세트를 전체의 72%로 늘렸다. 3만원대 이하 선물세트도 지난해보다 27% 늘렸고, 1만원 이하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과일 값 상승이 예상돼 ‘샤인머스켓 메론세트’(3만9900원), ‘당도선별 사과·배세트’(2만9900원~3만 4900원) 등 과일세트 할인폭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김재환기자

## 쿠쿠 공기청정기 ‘브릭’ 출시...눈에 띄네 사이즈·디자인

활용도 높은 크기...면적 47.9㎡ 밀착 청정



종합 건강 생활가전 기업 쿠쿠시스템은 신제품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브릭(모델명: AC-14R10FNW/14R20FNW)’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특징이다. 지난 3월 ‘202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2022)’에서 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 브릭은 47.9㎡(14.49평형)의 청정면적을 갖춘 콤팩트한 사이즈다. 거실은 물론, 침실, 서재, 아이방, 주방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전면에서 흡입한 공기를 걸러 상부에서 깨끗한 공기를 토출하는 방식의 ‘에어 테크놀로지’ 구조를 적용했다. 티보

모드를 통한 강한흡입과 토출로 신속하게 공기 관리가 가능하다. 브릭은 프리필터를 통해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 등 입자가 큰 먼지를 1차로 걸러주고 H13 토탈케어 안심필터로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등 5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없애 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PM 2.5 초미세먼지를 넘어 0.1μm 극초미세먼지도 99.999% 제거한다. 제품 상단의 컨트롤러로 ▲자동 ▲취침 ▲수동 ▲터보 ▲예약 등 주요 기능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 필터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 별도의 LED(발광다이오드) 알람이 점등된다. 스마트 청정 센서가 탑재돼 공기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기 질을 분석한다. 실내 밝기를 감지해 스스로 절전하는 ‘에너지 아이’, 미세먼지 센서값에 의해 풍량과 청정 상태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AI(인공지능) 자동운전’ 모드가 있다. 브릭은 노블화이트 컬러로 출시됐다. 추후 차분하고 우아한 색감을 살린 노블그레이, 그 레이스핑크, 노블민트 컬러로 라인업이 확장 된다. 최이슬기자

## 오뚜기, 푸짐한 면·고명 더한 냉장면 3종 출시

오뚜기는 기존 제품 대비 면의 양을 늘리고 푸짐한 고명을 더한 신제품 냉장면 3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신제품은 ▲프리미엄 평양 물냉면 ▲코다리 회냉면 ▲불고기 졸면 등 3종이다. 프리미엄 평양 물냉면은 기존 제품 대비 면을 20% 증량했고, 매일 함량 30%의 구수한 면발과 담백한 수육, 제육 고명으로 완전한 한 그릇을 즐길 수 있다. 코다리 회냉면은 기존 제품 대비 면을 10% 증량했고, 탱글한 함흥식 냉면사리와 쫄득한 식감의 코다리 회무침으로 구성했다. 뉴시스



불고기 졸면은 1등급 밀가루로 반죽한 면발과 태양초 고춧가루 비빔장, 불향 가득한 소불고기, 매추리알, 건조야채 등으로 이뤄졌다. 뉴시스

## 동서식품, 오레오 ‘시나몬 번’ 샌드위치 쿠키



동서식품은 오레오 시나몬 번 샌드위치 쿠키

키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신제품은 디저트 시나몬 번 맛을 구현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스킷이다. 시나몬 분말을 넣어 황금빛을 띠는 바삭한 오레오 쿠키 사이에 달콤한 아이싱 맛 크림을 더해 커피나 우유 등 다양한 음료와 즐기 좋다. 아슬비기자

## 빨라지는 ‘조기퇴사’에 시름...AI·빅데이터가 ‘인사관리’

조기퇴사 늘고 연령도 빨라져...기업들 고민심화

기업들의 인사관리(HR)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기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기 퇴사는 재직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과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보다 자유롭고 성취감 있는 워크라이프를 설계하고자 하는 조기 퇴사자가 늘고 있다. 연령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기업들은 조기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에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HR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인적자원관리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HR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HR테크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다. HR테크란 인적관리와 기술을 합친 용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통해 인재채용과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념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잦은 퇴사와 이직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어려움을 ‘프로젝트 단위 전문가 매칭’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기업과 전문가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연결하는 기업·전문가 매칭 플랫폼 ‘텔런트뱅크’가 대표적이다. 텔런트뱅크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풀을 토대로 기업이 프로젝트를 의뢰하면 맞춤형 전문가를 연결해준다. 텔런트뱅크는 경영전략, 신사업, 인사, 재무, IT, 디자인 등 비즈니스 영역별 전문 역량을 갖춘 1만5000명의 검증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의 프로젝트 의뢰 분야에 따라 인공 지능 매칭으로 전문가를 추천하고 지정된 담당 비즈니스디렉터(BD)가 프로젝트 구체화부터 애로사항 컨설팅, 대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담당한다.

지원자의 평판 조회 등을 돕는 플랫폼도 있다. ‘스펙터’는 채용하는 기업 대상 지원자 평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선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평판 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수집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판 관련 65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제공하는 형태다. HR 플랫폼 ‘플렉스’는 근태관리, 급여정산, 전자계약 등 기업 인사관리 전반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담은 HR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한다. 올인원 HR 플랫폼으로서 구성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인사 빅데이터를 시각화된 대시보드로 제공한다. 기존 ERP(전사적인적관리) 시스템 사용시 업무를 수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비해 플렉스를 도입하면 인사관리 업무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또는 인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오유나기자

## 버거킹, 내일부터 와퍼 등 46종 평균 4.6% 일부 가격인상

“물류비와 원재료비 등 각종 비용 지속적으로 올라 불가피 인상”

버거킹이 오는 29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가격이 인상된 메뉴는 버거류 36종을 포함해 총 46종이다. 평균 인상은 4.5%이다. 와

퍼는 6400원에서 6900원으로 오른다. 통치킨버거는 4400원에서 4600원, 와퍼 주니어는 4400원에서 46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버거킹 관계자는 “물류비와 원재료비 등 각종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며 “제품 개발과 기획에 더 힘을 쏟으며 좋은 품질의 버거와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